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가해자 수강명령 프로그램 효과: 단기 재범 추적연구

정 유 희
 서울보호관찰소

박 은 영[†]
 대전보호관찰소

손 의 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본 연구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가해자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효과를 단기 재범 추적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10년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수강명령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수강명령을 이수한 성폭력(N=380) 및 가정폭력 가해자(N=165)와 수강명령이 부과되지 않고 보호관찰 혹은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성범죄 가해자 N=196, 가정폭력 가해자 N=110)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두 집단의 나이, 학력 등 인구학적 변인 및 초범 나이, 동종·폭력 범죄력 등에서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성범죄자 집단의 생존분석 결과 수강명령을 이수한 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종 재범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폭력 재범 횟수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범죄의 재범횟수에서는 비교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생존함수 간의 차이도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 집단의 생존분석 결과, 동종 재범률 및 동종 재범 횟수에서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가정폭력을 포함한 폭력범죄의 재범횟수에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고, 생존함수 간의 차이 검증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그들의 폭력 재범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향후 연구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수강명령, 성폭력 프로그램, 가정폭력 프로그램, 재범률, 생존함수

[†] 교신저자: 박은영, 대전보호관찰소, 대전시 중구 보문로 282, Tel: 042-280-1282, E-mail: eyp02@hanmail.net

수강명령이란 법원이 범죄행위 대상자에게 일정 시간의 강의 또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하는 ‘사회 내 처우’로서, 범죄행위가 가해자의 잘못된 인식이나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친사회적인 방식으로 인지나 행동을 수정하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심리학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1989년 우리나라에 수강명령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비행소년의 교육 혹은 훈육의 성격이 강했으나 형법상의 집행유예 조건으로 수강명령이 부과되면서 치료적 개입을 포함하게 되었다. 2012년 8월 개정된 「수강명령 집행 지침(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수강명령의 주된 집행 분야 및 내용에 대해 ① 약물·마약·알코올 치료 강의(약물 등 오남용에 대한 이해 증진, 단약·단주 결심 유도 및 강화 등), ② 준법운전 강의(바람직한 운전습관, 교통사고 재발방지, 음주운전 예방 등), ③ 정신·심리치료 강의(인간의 정신심리 기제 인식과 자신에 대한 이해, 심리치료 등), ④ 성폭력 치료 강의(인지행동적 접근 소개,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 인지적 왜곡 수정 등), ⑤ 가정폭력 치료 강의(가정폭력의 범죄성 인식, 폭력행위 인정 및 재발방지 교육 등), ⑥ 성매매 방지 강의(성매매 개념과 환경, 성 의식 점검, 성매매 재발방지 교육 등), ⑦ 기타 대상자 범죄성향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수강명령의 집행 목표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인지나 생활습관 등을 수정하는 심리 치료적 개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강명령이 부과되는 범죄유형 중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후유증의 강도 및 지속기간이 상당하고 사건의 특성상 압수의 가능성이 높으며, 가족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수강명령제도의 활용이 더욱 필요한 분야이다. 북미나 유럽에서는 몇 십 년 전부터 관련 부처 주관으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해 왔고, 인지행동치료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 재발방지 모형 프로그램, 좋은 삶 모형 프로그램 등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치료 장면에서 더욱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효과 검증 연구

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에 있으며, 효과적인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변인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Hanson과 Morton-Bourgon(2004)의 메타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장 강력한 성범죄 재범 예측 변인은 ‘성적 이탈성(sexual deviancy)’과 ‘반사회적 성향’으로 밝혀졌고, ‘성에 대한 태도’, ‘친밀감 결핍’도 유의미한 재범예측 변인이었으나, ‘공감능력 부족’, ‘성범죄를 부인 혹은 축소하는 태도’, ‘치료에 대한 동기 부족’ 변인은 재범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교정 장면에서 실시한 성범죄자 치료를 받은 3,773명의 성폭력 및 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예측하는 정적 요인과 역동적 요인을 연구한 결과, 가장 강력한 재범 예측 인자는 석방 시 나이, 성범죄 횟수, 범죄 횟수 등 정적 위험성 요인으로 나타났다(Amdreus & Dowden, 2006; WaKeling, Freedmantel, Beech, & Elliott, 2011). WaKeling 등(2011)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사회·정서적 영역과 관련된 치료프로그램의 사전 심

리평가 점수가 역동적 재범 위험성 영역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임을 밝혀냈다.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성범죄자 치료 및 재발방지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하는 기관인 Safer Society Foundation(SSF)에서 이뤄진 연구를 보면, 서구의 성범죄자 치료는 반세기를 넘어 정신분석적 접근, 행동주의적 접근, 인지적 과정을 포함한 통합적 접근, 긍정 심리학적 접근으로 발전해 왔다(국립법무병원, 2012). 다양한 치료 접근 중 인지행동치료 접근이 재범률을 더욱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Aos, Miller, & Drake, 2006; Marquew, Nelson, Alarcon, & Day, 2000), 정신분석, 통찰-지향적 치료, 행동치료는 재범률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다(Aos, et al., 2006). 그리고 성범죄자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의 결과를 유의미하게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요소는 다음과 같았다: ① 집단 치료, ② 높은 치료 강도, ③ 치료 기간, ④ 통합적 접근, ⑤ 위험성-욕구-반응성 원칙(RNR), ⑥ 치료과정 참여를 격려하는 보상물 등이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Beech & Fordham, 1997; Marshall, 2005; Serran, Fernandez, & Marshall, 2003, Simons, Tyler, & Lins, 2003).

영국 New South Wales 교정국에서 Static-99 위험성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성인 남성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Risk band 분석¹⁾을 실시하였다. 치료이수자 117명을 대상으로 평균 3.75년 후의 재범률을 분석하였더니 실제 관찰된 성범죄 재범률이 Static-99로

예측된 재범률보다 유의미하게 낮았고, 폭력 재범률도 마찬가지였다(Woodrow & Bright, 2011). Olver, Nicholaichuk, Gu, 그리고 Wong (2012)은 캐나다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던 성범죄자 중 성범죄자 치료를 완료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 평균 11.7년 추수조사를 하였다. 연구자들은 처치집단과 비처치집단 간의 위험성-관련 차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간편 계리적 위험성 척도(Brief Actuarial Risk Scale)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총 732명(치료를 완료한 대상자 625명, 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 107명)에 대해 위험성과 개인차를 통제한 다음 추수 기간을 8년으로 고정하여 콕스 회기 생존분석(Cox Regression Survival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치료를 완료한 성범죄자들은 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성범죄자들에 비해 폭력 재범률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폭력 재범률과 총 재범률 분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처치집단과 비처치집단을 위험성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재범률을 비교한 결과 위험성이 ‘중’인 집단과 ‘상’인 집단에서 성폭력 재범률과 총 재범률에서 처치집단과 비처치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지적되었다. 또한, 성폭력 재범을 하더라도 치료를 완료한 대상자는 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 보다 사건의 심각도가 더 낮았고, 재범을 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 개입 프로그램에 관한 효과검증 연구는 자료 접근성의 제한 등으로 소수에 이르고 있다. 송원영, 노일석과 신의진(2013)은 성폭력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하고 재범 여부에 대해 7년 장기 추적하였다. 연구 결과 인지행동치료집단, 기존프로그램집단, 비

1) Risk band 분석: 위험성 평가 도구로 개발된 재범률과 실제 재범률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비치료통제 집단을 설정할 필요가 없고 후향적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노일석, 2011).

수강집단이 동종재범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성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 재범에서 각각 39.1%, 53.7%, 62.0%로 재범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효과 연구

미국의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은 1970년대 말경 여성 운동가들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치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가정폭력에 대한 더 강력한 법적 개입이 시작되면서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다. 이후 다양한 관점의 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미국의 각 주는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지침(Standards)을 마련하여 이 지침서에 따라 표준화된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을 집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김재엽, 2005).

Dutton, Bodnarchuk, Kropp, Hart와 Ogloff (1997)는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의 완료자, 중도탈락자, 치료 거부자의 재범률을 비교하였다. 치료 완료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재범률이 유의미하게 낮았고, 재범률 감소 뿐 아니라 우울 증상 감소, 분노 수준 감소 등 심리적 문제도 경감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치료 종료 약 27개월 이후 대상자와 대상자의 파트너를 상대로 자기-보고형 설문한 결과 치료 완료자의 분노 수준, 폭력의 사용, 심리학적 학대가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탈락과 관련된 변인은 가정폭력 재범 예측 인자로도 알려졌다. 예를 들면, 어린 나이,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실직, 교육수준, 미혼, 약물 남용, 반사회적 성격, 품행문제, 폭력 성향의 원가족

존재 여부, 대인 간 갈등 혹은 학대받은 과거력, 과거 가해행위의 심각성, 배우자 학대 문제로 체포된 전력 등이 배우자 가해행위 재범 예측 변인들로 알려졌는데(최용용, 김의명, 오정영, 2008; Bacock & Steiner, 1999; Cattaneo & Goodman, 2003; Hilton & Harris, 2005; Hilton, Harris, & Rice, 2001), 이 변인들은 가정폭력 가해행위와 관련된 고유의 예측 변인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재범 예측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로 단일 프로그램에서 시행한 자기 보고형 심리검사의 사전-사후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가정폭력 개입 프로그램의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보호관찰과 상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단일 보호관찰 개입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장휘숙, 2007)에서 보호관찰과 상담이 결합한 모형의 단기효과가 가장 클 뿐 아니라 폭력을 감소시키는 유일한 형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호처분의 폭력 억제 효과는 줄었고, 1년 후의 추수조사에 의하면 어떤 형태든 보호처분은 재범을 유의미하게 억제하지 못했으며, 폭력재발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개인의 범죄력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정폭력 부부를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하고 효과성을 살펴본 현진희(2007)의 연구를 따르면 프로그램 종료 후 4개월, 9개월 때 실시한 추수조사에서 처치집단은 비처치집단에 비해 심리적, 신체적 폭력 행동이 감소한 상태로 유지되었고, 부부 관계 만족도와 부부 적응 점수 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심리치료적 개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대 후반부터 성폭력 및 가정폭력 수강명령 프로그램 매뉴얼

을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수강명령 프로그램이 재범 방지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증거 기반적인(evidence based)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방 법

본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을 이수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가해자 집단과 수강명령 없이 보호관찰 혹은 사회봉사명령을 완료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가해자 집단을 대상으로 재범률을 비교하여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범조치까지 평균 경과 기간은 성폭력 집단 2년 4개월(840일), 가정폭력 집단 3년(1,095일)이었다.

연구 대상

성범죄자 집단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성범죄자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 380명을 처치집단으로 선정하였다(평균연령 36.06세, $SD=12.81$). 같은 해 수강명령을 부과받지 않고 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이수한 성범죄자 196명(평균연령 34.99세, $SD=11.15$)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였다.

가정폭력 가해자 집단

2010년 한 해 동안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가정폭력 가해자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 165명을 처치집단(남 155명, 여 10명, 평균연령 45.45세, $SD=9.29$)으로, 수강명령을 부과받지 않고 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처분받은 가정폭력 가해자 110명(남 106명, 여 4명, 평균연령 46.98세, $SD=9.06$)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수강명령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방식

성범죄자 수강명령 프로그램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09)에서 기획한 ‘성범죄자 치료 수강명령 전문프로그램 매뉴얼’은 범죄유발요인을 포함하여 서구의 증거 기반(evidence-based) 심리치료를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인지행동치료모델’, ‘재발방지모델’, ‘좋은 삶 모델’을 근간으로 사회 내 처우라는 특성을 고려, 대상자가 성과 관련한 인지적 오류를 수정하고, 일상생활에서 친사회적이고 긍정적인 경험을 증진하는데 유용한 치료적 개입을 제안한다. 전체 6개의 모듈로, 동기강화(사건 이후 부정적 감정 다루기), 성교육(현행 법령 이해, 건강한 성), 인지적 왜곡(강간 통념 이해), 공감(피해자 고통인식), 재범방지(스트레스 대처), 변화를 위한 제안(자기조절, 대인관계기술 향상)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2010년 당시 법무부 표준 매뉴얼을 교육받은 진행자가 운영한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약 40%에 이르렀으며 지역사회 성폭력상담소, 민우회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진행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비율이 더 높았다. 이들은 여성가족부 등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는데, 법무부 표준 매뉴얼에서 다루는 주요 주

표 1. 외부기관에서 운영한 성폭력 수강명령 프로그램 구성 예시

구분	회기	주제
A 성폭력 상담소	1회기	오리엔테이션, MBTI검사, 자기소개, 사건분석
	2회기	성인식 점검하기, 나의 성 역사 돌아보기, MBTI 유형 분석
	3회기	폭력에 대한 이해, 성적자기결정권 이해, 성폭력 통념 점검
	4회기	성적의사소통, 책임인정하기, 재범방지계획
	5회기	성폭력관련 법 이해, 나의 장점 찾기, 미래목표 세우기
B 성폭력 상담소	1회기	자기소개, 부정적 감정 다루기, 사건개요 털어놓기
	2회기	성교육, 인지행동모델소개, 인지적왜곡, 성폭력계획성 인정
	3회기	분노조절, 긍정적 감정 채우기, 가계도, 풀라주
	4회기	재범방지, 조망수용능력 키우기, 스트레스대처, 강간통념수정
	5회기	술과 약물조절, 대인관계능력증진

제들을 프로그램에 구성하여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기관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의 예시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가정폭력 가해자 수강명령 프로그램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는 정부기관에서 주관하기보다 관련 협회나 사설기관에서 매뉴얼을

개발하고 활용해 왔기 때문에 매뉴얼 개발이나 치료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성범죄자보다 활발하지 않다. 대부분의 치료 프로그램은 인지행동치료와 현실치료적 접근을 근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노조절’, ‘자존감 키우기’, ‘관계 기술 배우기’, ‘가족문제 해결방안 찾기’, ‘갈등해결’ 등의 주제들을 다룬다.

표 2. 외부기관에서 운영한 가정폭력 수강명령 프로그램 구성 예시

구분	회기	주제
C 가정 상담 센터	1회기	가정폭력관련 법교육,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차이, 대화기술
	2회기	사랑의 삼각형과 5가지 언어, 건강한 대화법, 관찰 훈련
	3회기	감정인식, 욕구와 소망 탐색하기
	4회기	소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요청 학습하기, 진솔한 표현과 공감적 경청
	5회기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4가지 반응 선택, 분노 및 스트레스 관리
D 가정폭력 상담소	1회기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 MBTI 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및 타인이해
	2회기	욕구척도 확인, 가계도를 통해 가족관계 이해,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3회기	가정폭력과 자녀교육, 피해자의 후유증 이해, 알콜과 폭력의 연관성
	4회기	비폭력대화기법, 경청과 공감, 스트레스와 분노관리
	5회기	성교육(성의식, 부부의 성), 풀라주를 통해 삶 조명

법무부에서 개발한 가정폭력치료 프로그램 매뉴얼(법무부, 2010)을 살펴보면 전체 8개의 모듈로, 마음 열기, 가정폭력 이해, 내 가족 이해, 가정폭력 상황탐색, 비폭력 행동기술 익히기, 가족관계회복 등의 주제들을 다룬다.

2010년 당시 법무부 표준 매뉴얼을 활용한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약 38%에 이르렀고, 62%는 지역사회 관련 분야의 전문 진행자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외부 전문 상담소 주관으로 운영된 프로그램 운영 내용의 예시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자료 수집

2010년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성폭력 치료,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 및 수강명령이 부과되지 않고 보호관찰 혹은 사회봉사를 종료한 대상자의 판·결정문, 보호관찰카드, 집행결과보고서, 수사 및 범죄경력 자료 등을 활용하여 동질성 검증 및 생존분석을 하였다.

자료 분석

법 집행기관의 교정 분야에서 심리적 개입

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범방지 혹은 재범감소’에 있기 때문에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입의 효과를 살필 때 재범률을 연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노일석, 2011). 본 연구에서는 생존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이수 후 일정 기간 재범 여부를 분석하여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입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은 의학계에서 많이 쓰이는 통계분석 방법으로, 연구자의 목적에 맞는 어떤 사건(event)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자료가 주어지면 사용되는 통계기법이다(박재빈, 2007). 이 분석 기법은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재범을 얼마나 빨리했는지, 재범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재범분석 관련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생존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동질성 검사를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과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생존분석을 위해 처치집단은 수강명령을 이수한 날, 비교집단은 보호관찰 혹은 사회봉사명령이 끝난 날로부터 재범조사를 한 2013년 9월 30일까지를 전체 기간으로 설정, 재범이 발생한 경우는 사건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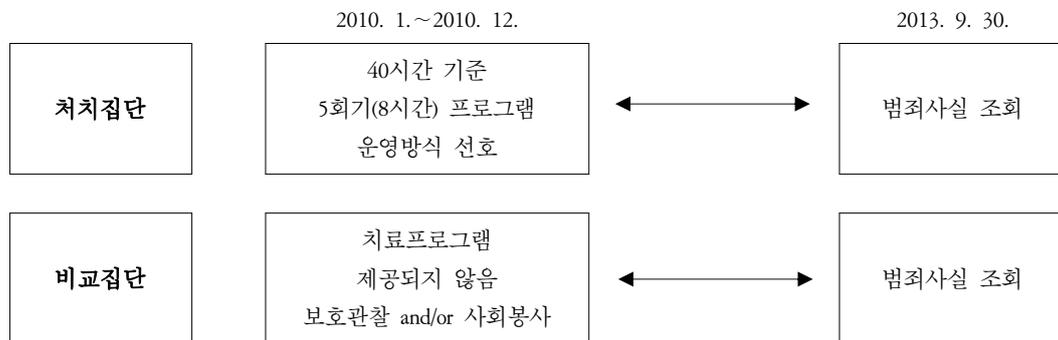


그림 1.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자료수집 절차

한 날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였으며, 성폭력은 Generalized Wilcoxon test, 가정폭력은 Kaplan-Meier 분석법을 활용하여 생존함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재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범의 횟수를 모두 합산하여 두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동종재범과 폭력 재범 여부를 관찰하였는데, 재범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범죄를 저질러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된 사실’로 정의하였고, 검사의 중구 처분일을 기준으로 재범을 계산하였으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재범에 포함하지 않았다. 성폭력 혹은 가정폭력 범죄를 다시 범하면 ‘동종재범’, 동종재범을 포함한 폭행, 상해, 강도, 살인 등 범죄를 범하면 ‘폭력 재범’으로 정의하였다.

결 과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인구학적 특성 및 프로그램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연령 별로 20대에서 40대가 대다수(75%)를 이루고 있었고, 미혼이거나 사별 혹은 이혼상태인 대상자가 약 63%였다(표 3).

2010년 당시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은 40시간 기준(91%), 외부강사를 활용하여(60%) 회기 당 8시간씩 5일 연속 집행하는 방식(63%)이 주를 이루었으며, 대상자 중 84%는 단일 프로그램에서 40시간을 이수하였고, 약 2%의 대상자들은 태도 불이행 등으로 경고 혹은 탈락

표 3.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	19세 이하	30(8%)
	20~30대(20-39세)	206(54%)
	40~50대(40-59세)	123(33%)
	60대 이상(60-73세)	21(5%)
최종 학력	무학	8(2%)
	초졸 이하	39(10%)
	중졸 이하	53(14%)
	고졸 이하	184(49%)
	2년제 대졸 이하	46(12%)
	대졸 이상	47(12%)
	불상	3(1%)
혼인 상태	미혼	212(56%)
	기혼	99(26%)
	사별	1(1%)
	이혼	23(6%)
	동거	5(1%)
	불상	40(10%)

표 4.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집단의 집행방식, 이행태도 현황

부과 시간	40시간 미만	7(2%)
	40시간	344(91%)
	80시간 이상	29(7%)
집행 방식	사내강사 집행	154(40%)
	외부강사 집행	226(60%)
회기 당 평균 집행 시간	4시간 이하	54(14%)
	5-7시간	84(22%)
	8시간	238(63%)
	불상	4(1%)
탈락 횟수	0회	359(94%)
	1~2회	6(2%)
	불상	15(4%)
이행 태도	기간경과 종료	361(95%)
	집행유예취소 종료	2(1%)
	불상	17(4%)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전체 대상자 중 단독 수강명령 부과자 29%, 보호관찰 병과자 36%, 전자장치부착자 8% 정도의 분포를 보였다.

성폭력 가해자 치료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동질성 검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처치집단

(N=380)과 수강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보호관찰 대상자로 구성된 비교집단(N=196)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변인 및 범죄경력 관련 변인의 동질성을 검증했다. 분석 결과 연령, 최종학력, 결혼 상태 등 인구학적 변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었고(최종학력: $\chi^2=1.39$, n , 결혼 상태: $\chi^2=-.06$, n), 범죄관련 변인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두 집단은 동질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표 5. 성범죄자 인구통계학적/범죄경력 관련 변인에 대한 동질성 검증 결과

인구학적 / 범죄경력 변인	처치집단(n=380)		비교집단(n=196)		t-test 결과	
	M	SD	M	SD	t	p
연령	36.06	12.81	34.99	11.15	1.04	.30
초범연령	25.47	9.57	25.44	9.50	.03	.97
동종범죄력	.25	.73	.17	.49	1.49	.14
폭력범죄력	1.08	2.36	1.57	3.30	-1.86	.08
전체범죄력	3.24	4.56	3.67	5.20	-.98	.33

동종 및 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자의 수

본 연구에서는 동종범죄 재범률을 고려하였고, 표 6은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종범죄 재범자 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동종범죄 재범은 처치집단 12.4%, 비교집단 14.8%이었고, 폭력재범의 비율은 비교집단(32.1%)이 치료집단(11.1%)보다 더 높았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

재범의 횟수

한 사람의 반복적인 범죄를 고려한 총 범죄²⁾의 횟수는 처치집단의 평균이 0.16회(.48), 비교집단의 평균인 0.21회(.57)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5.58$, ns .

재범까지의 생존분석

성폭력 재범 변인과 관련하여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생존함수 간의 차이 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Wilcoxon $\hat{A}=0.43$, ns (그림 2).

폭력범죄에 대한 재범

재범의 횟수

반복적인 범죄를 고려한 전제범죄의 횟수를 비교한 결과 처치집단의 평균은 0.35회(.82), 비교집단의 평균은 0.76회(1.24)였고,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F=30.94$, $p<.05$.

2) 한 사람의 반복적인 범죄를 고려한 총 범죄의 횟수: 한 사람이 재범을 여러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범 빈도를 모두 포함하여 각 집단의 재범을 평균을 계산하였다.

재범까지의 생존분석

폭력범죄 재범 변인과 관련하여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생존함수 간의 차이 검증 결과, 처치집단은 완만한 속도로, 비교집단은 약 100일 이후 재범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생존분석에서 두 집단 간 비교는 유의미하였다, Wilcoxon $\hat{A}=14.78$, $p<.001$ (그림 3).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인구학적 특성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7과 같다. 연령은 40~50대가 약 70%를 차지했고 고졸학력이 다수였으며 기혼이거나 파트너와 동거하는 경우가 75%이었다.

부과시간, 집행방식, 이행태도 등에 대한 현황은 표 8과 같다. 수강명령 부과시간은 40시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95%),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집행한 경우가 64%에 이르렀으며, 대부분 회기 당 8시간씩 5일 연속집행방식(98%)을 적용했다. 수강을 이수한 대상자 중 수강명령만 부과받은 경우는 28%로 보호관찰 혹은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받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조정신청 혹은 탈락 등으로 2회 이상 집행 지시를 받은 대상자들이 약 24%가 해당하고, 이행태도 불량 등으로 프로그램에서 탈락 처리된 대상자들은 약 5%에 이르렀다.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동질성 검증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처치집단(N=165)과 수강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보호관찰 대상으로 구성된 비교집단(N=110)의

표 6. 성범죄자 두 집단의 재범인원(N=576)

	처치집단		비교집단	
	n	%	n	%
성폭력 재범	47	12.4	29	14.8
폭력 재범	85	22.4	81	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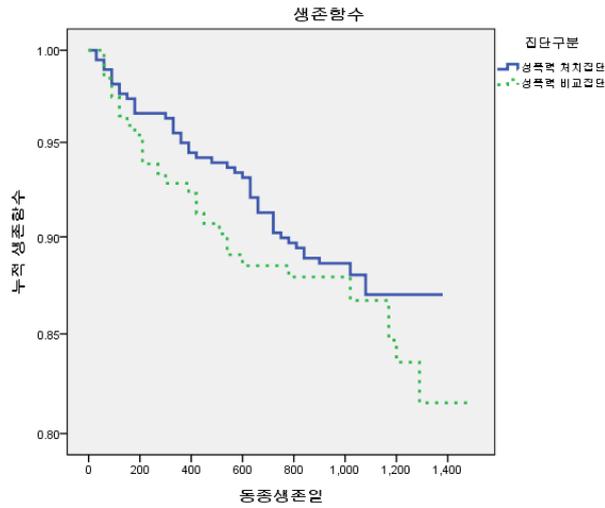


그림 2. 성범죄자 집단의 동종재범 생존분석 결과

표 7.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	20~30대(20-39세)	38(23%)
	40~50대(40-59세)	115(70%)
	60세 이상	12(7%)
최종 학력	무학	6(4%)
	초졸 이하	25(15%)
	중졸 이하	32(20%)
	고졸 이하	71(43%)
	2년제 대졸	14(8%)
	대졸이상	17(10%)
혼인 상태	미혼	12(7%)
	동거	12(7%)
	기혼	109(66%)
	이혼	3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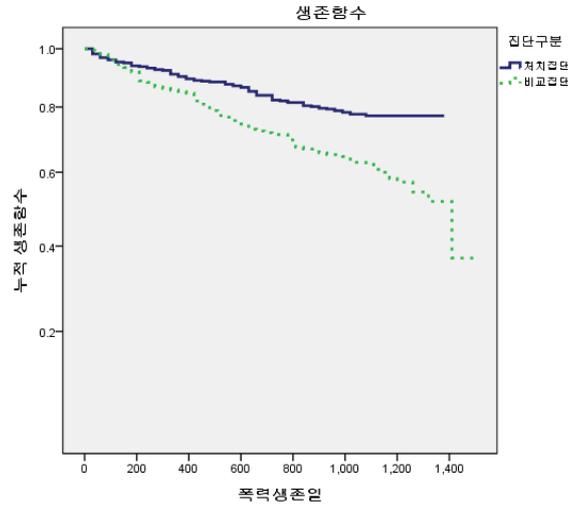


그림 3. 성범죄자 집단의 폭력재범 생존분석 결과

표 8.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집단의 집행방식, 이행태도 현황

부과 시간	16시간	1(6%)
	40시간	158(95%)
	80시간	6(4%)
집행 방식	사내강사 집행	59(36%)
	외부강사 집행	106(64%)
회기 당 평균 집행시간	4시간 이하	55(28%)
	7시간	12(13%)
	8시간	98(59%)
집행지시 횟수	1회	126(76%)
	2회 이상	39(24%)
탈락 횟수	0회	157(95%)
	1~3회	8(5%)
이행 태도	기간경과 종료	163(99%)
	보호처분변경 종료	2(1%)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동질성 검사를 한 결과, 결혼상태: $\chi^2 = -1.56$, ns . 범죄경력 관련 변인 (초범연령, 동종범죄력, 폭력범죄력)에서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표 9. 가정폭력 가해자 인구통계학적/범죄경력 관련 변인 동질성 검증 결과

인구학적 / 범죄경력 변인	처치집단(<i>n</i> =165)		비교집단(<i>n</i> =110)		<i>t</i> -test 결과	
	<i>M</i>	<i>SD</i>	<i>M</i>	<i>SD</i>	<i>t</i>	<i>p</i>
연령	45.45	9.29	46.98	9.06	-1.36	0.89
초범연령	30.30	11.45	32.63	11.87	-1.59	0.06
	<i>N</i>	%	<i>N</i>	%	χ^2	<i>p</i>
동종범죄력					1.70	0.13
없음	136	82.4	97	88.2		
있음	29	17.6	13	11.8		
폭력범죄력					0.09	0.13
없음	72	43.6	50	45.5		
있음	93	56.4	60	54.5		

두 집단이 대체로 동질한 집단구성원으로 이뤄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9).

동종 및 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자의 수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종범죄 및 폭력범죄에 대한 재범률을 비교해 보았다. 동종범죄의 재범률은 처치집단 4%, 비교집단 6%였고, 폭력범죄의 재범률은 처치집단 22%, 비교집단 35%였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범

재범의 횟수

한 사람의 반복적인 범죄를 고려한 총 범죄

의 횟수는 처치집단의 평균이 0.06회(.25), 비교집단의 평균이 0.07회(.39)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1.17$, *ns*.

재범까지의 생존분석

수강명령을 종료하고 재범했을 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생존 분석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생존함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0.60$, *ns*.

폭력범죄에 대한 재범

재범의 횟수

한 사람의 반복적인 범죄를 고려한 총 범죄

표 10. 가정폭력 가해자 두 집단의 재범인원(*N*=185)

	처치집단		비교집단	
	<i>n</i>	%	<i>n</i>	%
가정폭력 재범	7	4	7	6
폭력 재범	36	22	38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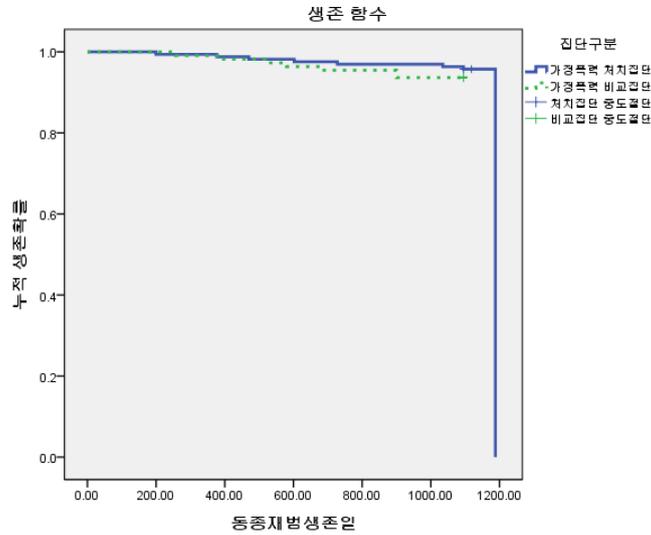


그림 4. 가정폭력 가해자 집단의 동종재범 생존분석 결과

의 횟수는 처치집단의 평균이 0.47회(1.08), 비교집단의 평균이 0.84회(1.52)였고,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지적되었다, $F=10.80$, $p<.05$.

재범까지의 생존분석

재범까지의 생존분석을 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처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완만한 속도로 재범이 증가하는 추세였고,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chi^2=3.89$,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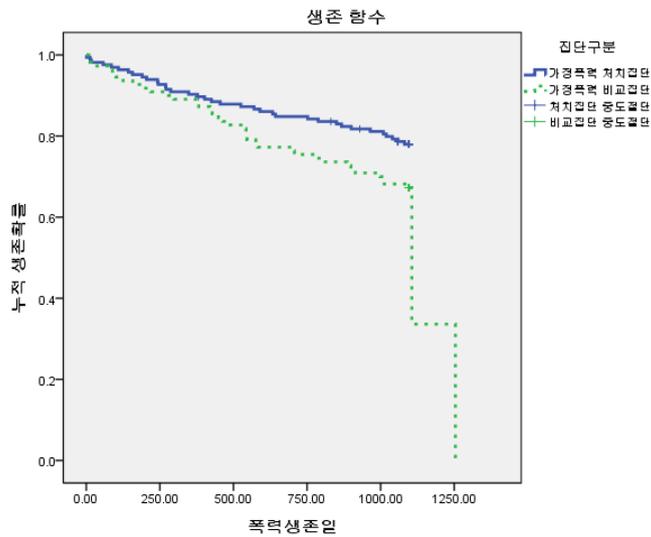


그림 5. 가정폭력 가해자 집단의 폭력재범 생존분석 결과

논 의

본 연구에서는 2010년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성범죄자 및 가정폭력 가해자 수강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수강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처치집단)와 수강명령 없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비교집단)의 재범률을 비교하였다. 우선 두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범죄 관련 변인의 동질성 검증하여 성범죄자와 가정폭력 가해자의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특성이 동질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성범죄자의 재범율을 살펴본 결과 재범 변인을 고려한 생존함수 비교에서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종인 성폭력 재범은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폭력 재범 비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율 분석에서도 동종 재범은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폭력 재범은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2010년 한 해 동안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한 성범죄자 및 가정폭력 가해자 수강명령 프로그램이 폭력재범 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을 추적한 이유는 재범 위험성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재범과 관련된 정적 위험성 요인들(static risk factor) 중 과거 폭력전과가 유의미한 재범 예측인자로 밝혀진 바 있으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도 광의의 개념인 폭력행위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이다(정유희, 2014). 생존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강명령 프로그램이 대상자들에게 가해행위를 하게 된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대안 행동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변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전방

적인 대인관계에서 갈등상황을 유발하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표출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 감소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10년 당시 법무부에서 제작한 표준 프로그램 매뉴얼이 있었으나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지역사회 전문강사에게 의뢰하여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집행하였고 이들의 프로그램 운영 철학이나 주제들이 통일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처치집단에서 폭력재범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결과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사범의 경우, 제재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수강명령 등의 심리치료적 개입을 하는 것이 재범감소 및 재사회화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북미권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성범죄자 및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위험성 평가 등 계획 단계부터 추수 회기까지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개입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 분석 자료도 축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각 주마다 민간 기관에 성범죄자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기준이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고, 국가에서 프로그램 강도, 기간, 다루는 주제, 치료자의 자격 등을 관리·감독함으로써 심리치료 개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법무부, 2007).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체계를 활용한다면 수강명령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집단의 동종 범죄의 재범에 대한 생존분석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차적인 목적이 ‘미래에 동일한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고 볼 때, 동종재범 억제를 위해 수강명령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종재범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음의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처치집단의 동질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집단 배치 시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나 학습스타일, 동기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Andrew와 Bonta(1998)가 제안한 ‘위험성-욕구-반응성 원칙(Risk-Need-Response, RNR)에 따르면 재범 감소라는 치료 효과를 얻으려면 재범 위험성, 대상자의 욕구,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이론은 교정 체계 이론적 틀의 핵심이 되고, 전 세계에서 가해자 재범·치료의 근간이다(Polaschek, 2012). 서구에서는 이 원칙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배치, 치료 기간 및 강도를 결정하고 있고, Hanson, Gordon, Harris, Marques, Murphy, Quinsy, 및 Seto(2002)의 연구에서 성범죄자 치료 관련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성공적인 심리치료의 공통적인 요소는 ‘위험성, 욕구, 반응성(RNR)’에 기초한 프로그램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대상자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할애되어야 하고, 충분한 기간에 걸쳐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 2010년 당시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집행 장면에서는 RNR원칙에 대한 인식 부족, 행정처리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1일 8시간씩 5일 연속으로 집행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뤘다. 앞으로 대상자의 범죄경력 및 재범 위험성 정도, 변화에 대한 동기 수준, 지적제한 및 정신과적 장애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치료자 변인과 관련된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치료자의 특성은 심리치료적 개입의 효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라는

점은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Beech & Fordham, 1997; Morgan, Luborsky, Crits-Christoph, Curtis, & Solomon, 1982; Simons, Tyler, & Lins, 2006). 윤정숙과 이수정(2012)은 교정장면에서 심리치료적 개입의 성공이 ‘치료자의 대인관계 기술 즉, 공감능력, 진실성, 따뜻함, 개방형의 질문법, 융통성 등’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2010년 당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수강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은 지역사회 관련 종사자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이들의 이론적 관점, 상담가로서의 자질이나 전문성 등에 대한 검증 및 관리가 부재했다. 2013년 이후 전국 7개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수강집행센터가 운영되면서 성폭력, 가정폭력 수강명령은 전문성이 검증된 직원들이 표준화된 프로그램 매뉴얼을 활용하여 심리치료적 개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운영의 한계 등으로 지역사회 전문인력의 활용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에서 프로그램 프로그램 진행자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교육·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 대상들의 동종범죄 재범의 기저율에 대한 문제이다. 통상 법원은 죄질의 경중,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 여부를 결정하는데,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인 대상자들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들에 비해 재범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사회 내 처우를 받고 수강명령을 이수한 대상자들은 동종 재범의 기저율이 낮기 때문에 심리치료적 개입 여부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Olver 등(2012)의 연구에서도 치료를 완료한 성범죄자들은 비교집단에 비해 폭력 재범률은 유의미하게 낮았으나 동종 및 총 범

죄 재범률에서 집단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런데 위험성 수준을 구분하여 재범률을 비교하였더니 위험성이 ‘중, 상’인 집단의 경우 성폭력 재범률과 총 재범률에서 처치집단과 비처치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집단을 구성하고 개입의 강도를 결정해야 하겠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무선통제연구가 이뤄지지 못하였다.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통제하여 비교집단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중 보호관찰 병과자가 약 2/3에 이르렀고, 이들이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은 사실도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보호관찰만 부과받은 경우,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경우, 수강명령만 부과받은 경우 죄질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정도가 이질적일 수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엄격한 무선통제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 개입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재범추적기간이 약 2년으로 짧았다는 점이다. 재범추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관찰기간이 늘어날수록 재범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며(이수정, 고려진과 최혜림, 2010), 연구자들은 최소 5년 정도의 관찰기간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노일석, 2011; 이수정과 김경옥, 2005; 정유희, 2014). 국내에서 성인 성범죄자 및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재범추적을 통해 수강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본 자료가 소수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운영방식, 심리치료적 개입 주제 등을 세분화하고 지속적인 재범 추적을 통

해 효과적인 개입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제한점에도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성범죄자 및 가정폭력 가해자 수강명령 프로그램에 대해 재범 추적을 통해 개입의 효과를 분석하고, 심리치료적 개입이 폭력 재범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앞으로의 연구방향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의 선행 연구들을 활용하여 성폭력 및 가정폭력 범죄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 위험요인, 재범모형 등 심리학적 기제에 관한 국내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위험성-욕구-반응성 원칙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조화하고, 법원의 판결 단계에서 수강명령 시간이 결정되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재범감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강명령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시도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각 사범의 하위 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연구 및 세분화한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하겠다. 성범죄자의 경우 비접촉 유형, 여성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학적 특성,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우 부부관계, 부모관계 등을 분류하여 접근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등 후속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법무병원 (2012). 성범죄자 치료를 위한 핵심(Core) 프로그램.
- 김재엽 (2005).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2(3), 87-111.

- 노일석 (2011). 소년 성폭력 인지행동치료의 효과성 평가. *보호관찰*, 11(1), 55-80.
- 박재빈 (2007). 생존분석 이론과 실제. *신광출판사*.
- 법무부 (2007). 성범죄자 치료처우 방안모색을 위한 미국의 성폭력 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실태연구.
- 법무부 (2009). 성범죄자 치료 수강명령 전문 프로그램 매뉴얼.
- 법무부 (2010). 가정폭력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 법무부 (2011). 성범죄자치료 수강명령 전문프로그램 매뉴얼.
- 법무부 (2012. 8.). 수강명령 집행 지침.
- 송원영, 노일석, 신의진 (2013). 청소년 성범죄자를 위한 인지행동치료의 장기 효과 검증: 7년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 667-682.
- 윤정숙, 이수정 (2012).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주요원칙과 방향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 847-875.
- 이수정, 고려진, 최혜림 (2010). 재범 추적을 통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999-1016.
- 이수정, 김경옥 (2005). 성범죄 재범을 실태 및 치료적 대안 모색: 보안감시를 넘어서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3), 83-99.
- 장휘숙 (2007).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법부 개입의 효과 - 보호처분 판결을 받은 폭력 남편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3, 159-183.
- 정유희 (2014). 좋은 삶 모형을 적용한 성인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응용, 김의명, 오정영 (2008). 현실치료-인지행동 집단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의사소통양식, 갈등해결능력,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3, 223-239.
- 현진희 (2007). 가정폭력 부부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추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한국가족복지학*, 21, 5-34.
- Andrews, D. A., & Bonta L. (1998).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2nd ed.), Cincinnati, OH: Anderson.
- Andrews, D. A., & Dowden, C. (2006). Risk Principle of Case Classification in Correctional Treatment. A Meta-Analytic Investig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0, 88-100.
- Aos, W., M. Miller, W. R., & Drake, E. (2006). *Evidence-based adult corrections programs: What works and what does not*. Olympia, Wash: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Document No. 06-01-1201.
- Bacock, J. C., & Steiner, R.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treatment, incarceration, and recidivism of battering: A Program Evaluation of Seattle's Coordinated Community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 46-59.
- Beech, A. R., & Fordham, A. S. (1997). Therapeutic Climate of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me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9, 219-237.
- Cattaneo, L. B., & Goodman, L., A. (2003). Victim-reported risk factors for continued abusive behavior: Assessing the dangerousness of arrested batterer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1, 349-369.

- Dutton, D. G., Bodnarchuk, M., Kropp, R., Hart, S., & Ogloff, J. (1997). Wife assault treatment and criminal recidivism: An eleven year follow-up.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1, 9-23.
- Hanson, R. K., & Morton-Bourgon, K. E. (2004). *Predictors of sexual recidivism: An updated meta-analysis*. Public Safe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Canada.
- Hanson, R. K., Gordon, A., Harris, A. J., Marques, J. K., Murphy, W., Quinsy, V. L., & Seto, M. C. (2002). First Report of the Collaborative Outcome Data Project on the Effectiveness of Psychological Treatment for Sex Offenders. *Sex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4, 169-194.
- Hilton, N. Z., & Harris, G. T. (2005). Predicting wife assault: A critical review and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Trauma, Violence, & Abuse*, 6, 3-23.
- Hilton, N. Z., Harris, G. T., & Rice, M. E. (2001). Predicting violence by serious wife assault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6, 408-423.
- Marques, J. K., Nelson, C., Alarcon, J. M., & Day, D. M. (2000). Preventing relapse in sex offenders: What we learned from SOTEP's experimental treatment program. In D. R. Laws, S. M. Hudson, & Word (Eds.), *Remaking relapse prevention with sex offenders: A handbook* (pp.321-340). Thousand Oaks, CA: Sage.
- Marshall, W. L. (2005). Therapist style in sexual offender treatment: Influence on indices of change.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7(2), 109-116.
- Morgan, R. W., Luborsky, L., Crits-Christoph, P., Curtis, H., & Solomon, J. (1982). Predicting the Outcomes of Psychotherapy Using the Penn Helping Alliance Rating Method.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9, 397-402.
- Olver, M. E., Nicholaichuk, T. P., Gu, D., & Wong, S. C. P. (2012). Sex Offender Treatment Outcome, Actuarial Risk, and the Aging Sex Offender in Canadian Corrections: A Long-Term Follow-up.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25, 296-422.
- Polaschek, D. L. L. (2012). An Appraisal of the Risk-Need-Responsivity(RNR) Model of Offender Rehabilitation and its Application in Correctional Treatment.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17, 1-17.
- Serran, G., Fernandez, Y., & Marshal, W. L. (2003). Process issues in treatment: Application to sexual offender program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4(4), 368-374.
- Simons, D., Tyler, C., and Lins, R. (2006). *The Influence of Therapist Characteristics on Treatment Progress*, Poster Session at the Annual Conference for the Association for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rs: Chicago.
- Wakeling, H. C., Freedmantel, N., Beech, A. R., & Elliott, I. A. (2001). Identifying predictors of recidivism in a large sample of United Kingdom sexual offenders: A prognostic model. *Psychological Services*, 8(4), 307-318.
- Woodrow, A. C. & Bright, D. A. (2011). Effectiveness of a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me: A Risk Band Analysis.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5, 43-55.

1차원고접수 : 2014. 07. 08.

수정원고접수 : 2014. 09. 29.

최종게재결정 : 2014. 10. 15.

Effect of Sex Offender, Domestic Assailant Attendance Order: Short-term Follow-up Study on Recidivism

Yu-Hee Jeong	Eun-Young Park	Yoi-Chull Sohn
Seoul Probation and Parole Office	Deajeon Probation and Parole Office	Ministry of Justice Department of Prob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hort-term effect of attendance order for sex offender and domestic assailant by analyzing their re-offending rate after attendance order. The targets were 380 sex offenders and 110 domestic assailants who fulfilled each attendance order sentenced by court in 2010(treatment group) and 196 sex offenders and 110 domestic assailants who were imposed probation and/or community service order without attendance order(comparison group). Survival test was performed after the homogeneity on age, education and number of crimes of sexual or domestic assaults between the treatment group and the comparison group was proved. The recidivism rate of sex crime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reatment group and the comparison group. The re-offense rate of the treatment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comparison group for both the sexual offense and domestic assault. The survival function also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est groups. The recidivism rate of family assailant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reatment group and the comparison group. However, the number of re-offens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The survival function also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est groups. The implication of these results was discussed and the direction for future studies to improve the attendance order was suggested.

Key words : sex offender, domestic assailant, attendance order, recidivism, survival function